

2014년도 협동 및 수시 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연구책임
협동 과제	주거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서수정
수시 과제	건축진흥원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	유광흠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운영 지침 마련 연구	김은희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제고를 위한 설계 발주제도 개선 방안	엄철호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실태조사 합리화 방안	임유경
	범죄예방 환경설계 매뉴얼 개발 방안 연구	유광흠

협동 과제

01 주거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최근 주택정책의 흐름이 주택공급에서 재고주택의 관리와 재생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나 노후 단독주택의 낮은 주거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즉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 「건축법」의 주택관리지원센터 등 각종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법령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013.12.)으로 장소 중심의 복합적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는 올 하반기에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각 법령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센터 설립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구체적인 실행 및 지원방안 부재로 주거지원 관련 정책의 분산과 지원대상의 중복지원 등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주거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조직 간의 역할 정립과 연계 방안을 고려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주거지원센터가 갖춰야 할 조직체계 및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지원센터 관련 조직 간 거버넌스 구축방안 및 주거지원센터의 세부조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센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 및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서수정

수시 과제**01 건축진흥원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

2014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 정책들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필요하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5조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관련 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진흥원은 관련 분야의 '산업 진흥법'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하여 산업을 진흥하고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본 연구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투입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관련 산업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와 관련 산업 분야를 지원·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략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광흠

02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운영 지침 마련 연구

본 연구는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10개 주민주도형 안심마을을 조성 시범사업의 기획 및 추진 절차를 모니터링하고 향후 사업 확대·지속을 위한 체계적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은 국가의 안전관리 대상이 대규모 재난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과 형태의 일상생활 안전사고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이 주도하여 안전한 지역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는 정부차원의 지원사업이다.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은 도시·농촌·특정지역을 포함하여 총 10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주축으로 해당 지자체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 안전한 공간환경(안전인프라) 구축과 주민들의 안전지킴 활동(안심네트워크)으로 나뉜다. 본 연구는 그중에서도 특히 공간환경에 대한 세부사업과 사업추진방식, 실시설계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체계적 사업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려 한다.

김은희

03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제고를 위한 설계 발주제도 개선 방안

국내 에너지소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량의 절감을 위해 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을 포함하여 신축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취득 의무화,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 등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제고를 위해 설계자 선정을 위한 발주단계에서 설계지침서에 에너지 효율 등급을 고려하도록 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에너지 절감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공모안 등이 상대적으로 외형적인 디자인에 치중되면서 에너지 절감에 대한 고려는 대부분 설비적인 부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공건축물의 보다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에너지 성능 제고를 위해서는 설계발주 단계에서 친환경 건축물의 설계를 유도하고, 친환경적인 고려가 잘된 설계안이 선정될 수 있는 평가기준과 설계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건축 활성화 정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등 최근의 관련 제도·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우수 녹색건축물을 포함한 설계 발주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공공건축물의 설계 유도를 위한 설계 발주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염철호

04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실태조사 합리화 방안

2013년 하반기 기준, 전국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후 2년 이상 지난 건축물은 총 880개 동(현장 수 기준 478곳)이며, 그중 89.32%에 이르는 786개 동은 공사 재개 또는 철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방치 건축물은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되거나 청소년들의 비행·탈선 장소로 활용되는 등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특히 이미 설치된 구조물과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안전 사고 발생 우려도 크다.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2013.5.22.)은 장기방치 건축물 문제에 대한 공공 개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방치건축물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방향과 재정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중 국토교통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방치건축물의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이후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 단계다.

본 연구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

조사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조사 세부 항목과 조사 방법, 조사 진행을 위한 인원 구성과 소요 예산 등에 대해 사전 검토하여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전국 단위의 합리적 전수 조사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유경

05 범죄예방 환경설계 매뉴얼 개발 방안 연구

2013년 1월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이 고시된 후 같은 해 3월 서울시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는 등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구축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 환경을 디자인하는 현장 실무자나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공무원들이 참고하기에 적합하고, 국내 현실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실무자들이 손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의 개발에 대한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축·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주요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요소를 도출하고, 기존의 각종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조사·분석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해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의 개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제안을 토대로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매뉴얼'을 개발할 예정이다. 개발된 매뉴얼은 실무자들이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 과정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광훈

포럼 및 세미나

건축도시포럼

2014 제2회 AURI 건축도시포럼 개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6월 3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과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의 개편」을 주제로 '2014 제2회 AURI 건축도시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6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등 공공기관 발주 담당자, 건축설계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새로이 개편되는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의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주제발표는 김상문 과장(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을 대신하여 김유진 사무관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의의와 주요 내용이라는 주제로 진흥법의 제정 배경과 입법 과정 및 주요 내용(실태조사, 설계공모의 활성화,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공공건축 지원센터 지정 등)을 소개하였다.

이어 박인수 대표(파크이즈건축사사무소)가 '좋은 공공건축을 위한 과제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거는 기대'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박 대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건축 관련 법령의 변화와 건축의 위상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염철호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은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설계발주제도의 개선」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염 연구위원은 그동안 이어온 건축 관련 법령과 그 법령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 해외 발주제도 등을 소개하는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주요 제정 의의를 짚어 보았다. 이번 진흥법에 따라 개편되는 설계발주제도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충기 교수(서울시립대 건축학부)를 좌장으로 김주경 소장(오우재건축사사무소), 박근우 주무관(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이정면 대표(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와 주제발표자들이 패널로 나섰다. 짧은 토론에 이어 사전



에 청중으로부터 받은 질의서와 의견 제출서를 바탕으로 패널과 청중들의 자유로운 질의응답도 진행되었다.

패널과 청중들은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의 지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 의의를 이해하면서도 세부법령의 제정 및 시행이 다양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타 관련 법과의 관계도 정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을 앞두고 개편될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에 관심 있는 공공기관의 발주담당자, 건축설계사무소, 학협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진흥법의 올바른 정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옥포럼

2014 auri 국가한옥센터

제1차 한옥포럼 개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가 주최한 '2014 auri 국가한옥센터 제1차 한옥포럼'이 4월 2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한옥포럼은 올해 '신기술로 만나는 한옥'이라는 주제로 총 4회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행사는 그 첫 번째로 '편리한 한옥

짓기'라는 주제하에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에 앞서 이강민 센터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이 2014년 한옥포럼의 대주제인 '신기술로 만나는 한옥'의 선정 배경과 4개의 세부 주제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첫 번째 발제자인 황진하 대표(별터건축사무소)가 '한옥에 편의성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한옥의 유지관리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계동 배령가옥, 이태준 가옥, 해화동 주민자치센터 등 직접 시행한 기존 한옥의 개·보수 사례를 중심으로 기능과 사용자의 편의성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현구 사무국장(행복전통마을)은 '고택, 어디까지 개조해야 하나?'를 주제로 SK기업이 안동시, 경상북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안동고택사업을 소개하였다. 고택을 활용하여 숙박시설로 개·보수한 진행 과정과 전통미를 고려한 현대적 편의성 증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수암 선임연구위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생활 패턴에 따른 한옥평면의 변화'를 주제로 전국 7개 지역의 246가구 한옥 평면 조사·분석을 통해 지역 및 거주자의 생활양식과 거주 패턴에 따른 다양한 한옥의 평면구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영섭 교수(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를 좌장으로 김용미 대표이사(금성건축사사무소), 김정희 과장(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이강민 센터장, 이용완 대표(dism21), 이은복 과장(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전상인 교수(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가 패널로 참석하여 한옥이 어디까지 편리해야 하는지, 한옥에서의 편리함과 불편함의 의미, 변화하고 있는 한옥에서의 정통성, 한옥의 현대적 정의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벌였다.

2014년에 첫 번째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관련 전문가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한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어지는 제2차 한옥포럼은 '오래 가는 한옥짓기'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강연회

제1차 AURI 해외초청강연회 개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4년 제1차 해외초청강연회를 지난 5월 7일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번 해외초청강연회는 '신도시·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과 중국에서의 적용사례'라는 주제로 중국 베이징에서 ISA 도시계획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장야진 박사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장 박사는 유럽의 신도시 계획을 소개하는 한편 중국의 신도시 개발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다양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연구진에게 강연하였다.

강연은 두 개의 테마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유럽지역(영국, 네덜란드, 독일)의 시대별 주거지 변천사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중국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및 개발 목적에 대하여 시대별로 지역적 사례를 설명해 가며 들려줬다.

중국의 도시개발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49년부터 1979년(30년간)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업지역과 주거지역만으로 존재하였다. 이어 1979년부터 1992년까지(15년간)는 도시계획 없이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1979년 경제자유화로 인하여 농촌 양극화 및 도시 기반시설의 노후가 찾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전에 도시계획 없이 도시화를

진행한 이유 때문에 발생하였다.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에서는 10개의 신도시가 만들어졌다. 신도시는 도심지로부터 15-60km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신도시 개발로 경제적 기능이 성장하였다. 중국의 신도시 개발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 아니라 경제적 성장을 제1의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에 있어 서양의 도시계획을 지향하면서도 중국 본연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또한 중국의 신도시 개발은 대지비용이 저렴하고, 대량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 자체가 실거주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계획되고 짧은 기간에 조성됨으로써 도시의 활력 및 다양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중국의 신도시 개발은 친환경적이며 인구밀도를 고려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장아진 박사는 지적하였다.

강연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신도시 계획 이후 발생된 지역주민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고밀도 건축물의 관리와 한국 도시계획 사무소의 중국시장 진출에 대한 의견교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AURI 해외초청강연회는 연구원에게 다양한 지식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중 비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연구소 단신

건축도시정책연구네트워크 행사 개최

(제1차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생」)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역발전연구원과의 협력과 소통을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건축도시정책연구네트워크 행사를 마련하였다. 전주코아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5월 22일(목)부터 23일(금)까지 1박2일 동안 진행되었다. 1일차는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생'을 주제로 건축문화 자산을 활용한 창조적 장소재생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문화의 형성 그리고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2일차에서는 전주 도시재생사업 R&D 테스트베드 지역과 전주 한옥 마을을 답사하였다. 건축도시정책연구네트워크는 이번 제1차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건축도시와 관련한 지역의 현안과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연구소는 본 행사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제시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국가한옥센터, 2014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사전행사 워크숍 개최 (주제 : 한옥설계의 이해)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는 2014 대한민국 한옥공모전(국토부 주최) 계획 부문 참가 예정자들과 한옥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들의 한옥설계방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한옥공모전 계획부문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5월 29일 페럼타워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한옥공모전의 취지에 대한 강연과 함께 한옥관련 특강, 2013년 공모 수상사례, 2014년 공모진행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한옥관련 특강은 올해 계획 부문 공모대상인 한옥 공공건축물에 초점을 맞추어 한옥 공공건축물의 정의 및 시설물의 범위(신치후 부연구위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옥 설계방법 계획부문(조정구 소장, 구가 도시건축사사무소), 한옥설계방법 구조부문(류성룡 교수, 계명대학교)에 대한 강의를 마련하였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누구나 누리는 한옥'이라는 주제로 계획부문(작품접수 8.28-9.2), 준공부문(작품접수 7.29-8.1)과 사진부문(작품접수 7.28-8.1)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한옥의 공공성 및 저변확대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라, 지난 6월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받았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설계용역비가 고시금액(2억 3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규모와 예산의 적정성, 발주방식 및 디자인 관리방안의 효율성, 공공적 가치 제고방안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공공건축 조성사업의 내실화 및 공공건축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자문, 공공건축 DB 구축 및 관계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총액 중 건물재산은 35조 2,814억 원으로 전체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공유재산 규모는 24조원으로 전체 공유재산(246조)의 약 10% 수준이다. 또한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수주동향에 의하면 국내 건설 수주액 중 공공부문 건축수주액은 2010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공공부문 건축수주액은 16.1조 원으로 전체 건축공사 수주액인 61.4조 원의 26.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공공건축이 국가 및 지자체의 재산과 건설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 조성과정은 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 지원체계 및 기획단계의 부실로 인해 공공건축의 획일적 디자인, 과대·과다 시설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해성 소장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가의 공공건축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공공건축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품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및 역할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http://www.npbcr.or.kr>)를 통해 안내 되며,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연구소 행사 안내

2014 auri 국가한옥센터 제2차 한옥포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에서 주최하는 2014 auri 국가한옥센터 제2차 한옥포럼이 7월 3일(목)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 1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올해 한옥포럼은 '신기술로 만나는 한옥'이라는 대주제로 한옥을 변화시키고 있는 신기술의 경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으며, 이번 2차 포럼에서는 '오래가는 한옥짓기'를 주제로 한옥의 고유한 장점을 보존하면서 신기술을 이용해 내구성과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 순서로 한옥수선 및 한옥건축 인증제도와 관련한 3편의 주제발표가 있다. 첫 번째



발표로 서울시 한옥조성팀 이기봉 팀장이 '한옥수선 가이드라인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오랜 노하우가 축적된 한옥 수선 가이드라인을 소개한다. 두 번째로는 (사)한국목조건축협회의 최규철 본부장이 '100년 주택을 향한 목조건축 품질인증제'를 주제로 서양식 목조건축의 품질보증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5-star 품질인증제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국가한옥센터 이강민 센터장이 한옥의 고유한 특성을 보전하면서 현대적 성능을 담보하는 '한옥건축 인증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한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한남대학교 건축학부 한필원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김정희 과장,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안국진 연구위원, (주)엑토종합건축사사무소 정기황 이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기술기준처 황하진 수석연구원 등이 한옥의 품질 및 성능확보를 위해 마련되어야 할 한옥건축의 기준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국가한옥센터는 이번 포럼을 통해 "한옥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안전하고 오래가는 한옥을 짓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2014 auri 보행도시포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4 auri 보행도시포럼이 7월 8일(화) 오후2시, 서울역사박물관 1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보행자를 위한 도시, 정책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도시정책의 우선순위가 사람 중심, 보행자 우선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추진되어온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해 정리하고 널리 공유함으로써 보행자 중심의 도시 공간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기반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조발제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오성훈 본부장이 '보행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아마존 사업 등 보행관련 공공정책 현황 및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보행환경 관련 연구동향에 대해 소개하며, 이후 각 시범사업과 관련 법제 현황 및 개선사항을 주제로 3편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먼저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심한별 연구원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남궁지희 연구원이 각각 '아마존 시범사업'과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의 추진현황 및 효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김지엽 교수가 '보행자 관련 법제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

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소현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최임락 과장,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이원목 과장, 성북구 교통행정과 교통개선팀 김종식 팀장, 도로교통공단 교통공학연구실 김중호 선임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간문화정책연구본부 오성훈 본부장 등이 보행관련 정책과 시범사업, 보행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